



‘EPL 킬러’ 우드 막아라 김학범 감독의 선택은?

1승 재물로 여겨던 뉴질랜드, 최강 엔트리 발포
번리 공격수 우드·웨스트햄 수비수 리드 선발
센터백 김민재·최전방 황의조·MF 권창훈 유력

7월 개막할 도쿄올림픽을 앞둔 올림픽축구대표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이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30일 대회 최종 엔트리(18명) 구성을 염두에 둔 마지막 훈련에 한창인 가운데 우리가 1승 재물로 여기는 상대국이 최정예 진용을 구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축구협회는 25일 도쿄올림픽에 나설 22명(에비엔트리 4명 포함)을 공개했다. 특히 주목할 인물은 와일드카드(만 25세 이상)로 발탁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소속 스트라이커 크리스 우드(번리)와 베테랑 수비수 윈스턴 리드(웨스트햄)다.

올림픽 본선 조별리그 B조에 편성된 ‘김학범호’는 7월 22일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뉴질랜드와 1차전을 치른다. 동유럽의 루마니아, 북중미의 온두라스와 8강 진출을 다투는 상황에서 뉴질랜드는 무조건 꺾어야 할 상대다.

2012년 런던대회 이후 2번째 올림픽 출전을 앞둔 우드는 웨스트 브로미치~레스터시티~리즈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번리 유니폼을 입고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포를 가동했다. 지난 시즌에도 12골·3도움(33경기)을 기록한 그는 2010남아공월드컵을 포함한 A매치 55경기에서 24골을 넣은 요주의 인물이다.

리드 역시 실력이 검증된 특급 수비수다. 역시 남아공 월드컵을 거쳤고, 2010년부터 웨스트햄에 몸담고 있다. 최근 캔자스시티(미국), 브렌트포드(잉글랜드)에 임대됐으나 박리그에서 곳곳하게 생존했다. 다만 뉴질랜드는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리드의 합류가 어려울 경우, 팀 페인(웰링턴·미국)의 발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

뉴질랜드는 또 미네소타(미국)에서 뛰는 수비수 마이클 박스울도 와일드카드로 선택했다. 2008년 베이징대회에도 출전해 올림픽이 낯설지 않은 선수다.

당연히 김 감독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다. 최정예에는 최정예로 맞서야 하는 법이다. 김 감독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지만, 후보군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팀의 중심축을 이뤄줄 최전방부터 미드필더, 중앙수비수를 1명씩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울산 현대), 조규성(김천 상무)을 전부 제외한 공격진에는 황의조(보르도)를 채우고, 미드필더에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다 올 여름 K리그로 복귀한 권창훈(수원 삼성)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과제인 센터백에는 김민재(베이징 귀안)가 1순위로 거론되는데, 유럽무대 진출 여부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플랜B로는 군에 입대한 박지수(김천 상무)가 유력하다.

올림픽대표팀 관계자는 “(김학범 감독이) 모든 상황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해외 진출의 경우 30일 오전까지 윤곽이 드러나야 올림픽 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지는 법’을 잊은 이탈리아, 4회연속 8강행

오스트리아 연장 접전끝 2-1 제압
벨기에-포르투갈 승자와 4강행 대결
‘기적의 팀’ 덴마크는 웨일스에 4-0
첫 2G연속 4골…17년만에 8강 진출



헬로! 유로2020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와 ‘기적의 팀’ 덴마크가 2020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 8강에 선착했다.

이탈리아는 2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2번째 16강전에서 오스트리아를 연장 접전 끝에 2-1로 따돌렸다. 유로대회 4회 연속 8강 진출이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를 3전승으로 통과했던 이탈리아는 이로써 1935~1939년 작성한 종전 A매치 30경기 연속무패(24승6무)를 넘어 자체 신기록(31경기·26승5무)을 세웠다. 이탈리아는 2018년 10월 우크라이나전(1-1 무전 이후 한 차례도 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에스토니아전(4-0 승)부터 이날 오스트리아전까지 12연승을 질주하며 2018년 11월 미국전(1-0 승)부터 이듬해 11월 아르메니아전(9-1 승)까지 달성한 자체 종전 최다 11연승 기록도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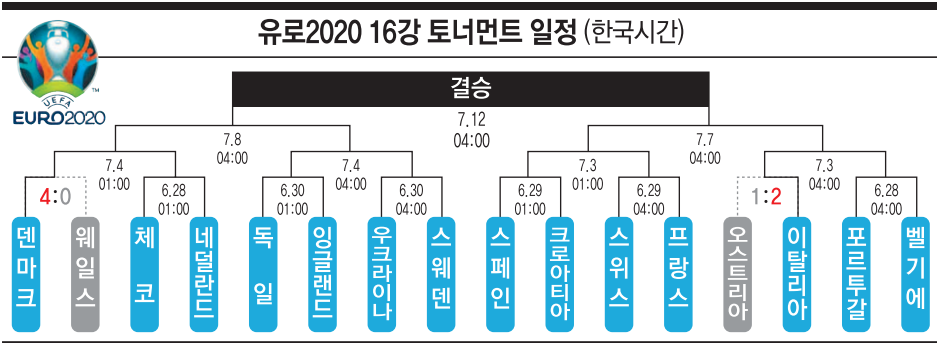
이탈리아는 3일 오전 4시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벨기에-포르투갈전 승자와 4강행을 다룬다.

전·후반 90분을 득점 없이 마친 이탈리아는 연장 전반 5분 0의 균형을 깼다. 페데리코 키에사가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기세가 오른 이탈리아는 연장 전반 15분 마테오 페시나의 추가골로 승기를 잡았다. 반격에 나선 오스트리아도 연장 후반 9분 사샤 칼라지치의 헤더 만화골로 응수했으나, 더 이상의 추격에는 실패했다.

덴마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요한크루이프 아레나에서 벌어진 대회 첫 16강전에서 웨일스를 4-0으로 대파하고 2004년 이후 17년 만에 8강에 합류했다. 조별리그



이탈리아의 마테오 페시나(12번)가 27일(한국시간)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오스트리아와 유로2020 16강전에서 연장 전반 종료 직전 2-0으로 달아나는 골을 뽑고 환호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1로 이겨 8강에 올랐다.



에서 2연패 후 최종전에서 러시아를 4-1로 완파하고 극적으로 16강에 턱걸이했던 덴

마크는 유로대회 사상 최초로 2경기 연속 4골의 신기록까지 달성했다.

핀란드와 조별리그 1차전 도중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위기를 맞았던 덴마크는 에릭센이 안정을 되찾은 뒤로는 한결 단단해진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날도 전반 27분과 후반 3분 가스페르 둘베르의 연속골, 후반 43분 요아킴 메슬레의 추가골, 추가시간 마르틴 브레이스웨이트의 썬기골로 완승을 거뒀다. 덴마크는 4일 오전 1시 아제르바이잔 바쿠 올림픽 경기장에서 네덜란드-체코전 승자와 8강전을 치른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동남아에 혼쭐·일본에 고배…불안한 ACL 초반

울산·전북,비엠텔·치앙라이에 진땀
대구·포항은 가와사키·나고야에 패



K리그의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초반 행보가 불안하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 현대와 전통적 강호 전북 현대는 동남아시아의 거센 도전에 고전했고, 포항 스틸러스와 대구 FC는 일본 J리그에 무릎을 꿇었다.

울산은 26일(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

에서 열린 비엠텔(베트남)과 대회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1-0으로 이겼다. 후반 종료 직전 상대 자책골에 가까운 힌터제어의 결승골로 간신히 승점 3을 챙겼다. 유호舜이 1회에 불과할 정도로 고전한 울산은 후반 중반 힌터제어, 오세훈 등 장신 스트라이커들을 전부 투입한 뒤에야 비엠텔의 골문을 열 수 있었다. 홍명보 울산 감독은 “이런 득점에 실패해 힘겨운 경기를 했다”며 아쉬워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조별리그 일정을 소화하는 전북도 승수를 쌓긴 했으

나 시원한 경기는 아니었다. 26일 치앙라이(태국)와 H조 1차전에서 전반 36분 이승기, 후반 7분 구스타보의 페널티킥(PK) 골로 앞선 전북은 후반 중반 이용의 실수로 실점해 2-1 승리에 그쳤다. 김상식 전북 감독은 “후반 많은 교체로 경기 적응에 어려움이 따랐다”고 밝혔다.

대구와 포항은 클럽 한·일전에서 고배를 들었다. 경기력은 대조됐다. 타슈켄트로 향한 대구는 27일 H조 1차전에서 J리그 챔피언 가와사키 프론탈레에 2-3으로 석패했다. 전반 8분 황순민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고, 1-1로 맞선 후반 2분 세정야의 골로 다시 앞섰으나 후반 6분과 10분 연속 실점했다.

대구는 최근 리그 10경기 무패(8승2무)의

상승세를 앞세워 개막 후 21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던 가와사키와 팽팽하게 맞섰으나 전반 28분 에드가의 PK가 상대 수문장 정성통에 막힌 것이 뼈아팠다. 이병근 대구 감독은 “내용에선 패하지 않았다”고 자부했다.

포항은 25일 방콕에서 열린 나고야그랑퍼스와 G조 2차전에서 0-3으로 완패했다. 후반 18분 신광훈의 경고누적 퇴장이 결정타였다. 조 3위로 내려앉은 포항은 28일 조호르 다를 타집(말레이시아)과 3차전을 치른다.

한편 29일 전북은 감바 오사카(일본)를 만나고, 울산과 대구는 각각 빠툼 유나이티드(태국)와 유나이티드 시티(필리핀)를 상대로 2차전을 펼친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이상헌 결승골…부산, 서울FC 잡고 시즌 8승



K리그2(2부) 서울 이랜드는 정신포는 한 주를 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선수가 발생했다. 최근 5경기 연속 무득점, 8경기 무승(5무3패)으로 부진한 와중에 터진 뜻밖의 사태에 선수단 분위기는 더 가라앉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 김민균 등 일부를 제외하면 선수단에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 이는 거의 없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리그 일정을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K리그2 일

부 일정이 코로나19로 꼬인 상황에서 추가 연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었다.

그렇게 서울 이랜드와 부산 아이파크가 27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하하원류 K리그2 2021’ 18라운드 경기를 예정대로 치렀다. 하지만 서울 이랜드의 불행은 끝이 아니었다. 90분 후 전광판에는 부산의 1-0 승리가 새겨졌다. 후반 3분 이상헌이 결승골을 터트렸다.

홈팀인 빈손이었다. 갈질한 득점도, 승점 3도 얻지 못한 채 4승7무7패, 승점 19에 묶이며 하위권 탈출 기회를 놓쳤다. “한 골

무실점 승리로 최다실점 오명 벗어 서울FC, 9경기 연속 무승…부진 늘

만 넣으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던 정정용 서울 이랜드 감독의 조심스러운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5월 2일 안산 그리너스 1-0으로 꺾은 뒤 지속된 무승 행진을 6월까지도 끊지 못했다.

당연히 원정팀 부산에는 달달한 원정길이었다. FC안양과 최근 홈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4-5로 석패한 부산은 시즌 8승(2무7패)째를 챙겨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 이랜드와 상대전적도 10승4무4패의 확실한 우위를 지켰다.

앞선 16경기에서 쌓인 최다실점(28골)



부산 아이파크가 27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벌어진 서울 이랜드와 원정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후반 3분 터진 이상헌의 선제 결승골에 환호하는 부산 선수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의 오명을 이날의 무실점 승리로 깔끔히 씻었음은 물론이다. “공격적인 컬러를 지키며 더욱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던 페레즈 부산 감독이 모든 것을 쟁겼다.

정철 | 남창현 기자